여성과 안전한 삶: 사건, 반성, 그리고 성찰

성 신 형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로(1996),[1]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 근대'로(2000)[2] 진단하였다. 이 두 사회학자는 인간에게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던 근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자도생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 이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홉스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6).
2)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 근대』, (서울: 도서출판 강, 2000).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열망하지만,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다. 외적으로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량살상 전쟁 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차이와 차별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상의 중심에는 성차별 이슈가 있다. 젠더 이슈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범위가 넓어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슈는 어떤 심각한 사건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논의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건이 반복되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인 갈등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젠더 갈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자의 ‘반성문’이다. 반성문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 글은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로 인한 갈등 현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교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철학자의 눈으로 지켜보고 기록하면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에 대해서 주장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독교윤리적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세 가지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서,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통계로 드러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었고(약 81%), 피해자는 주로 여성(약 80%)이었다.[3]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53%)은 가까이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

3) 이세아, “여자라 당했다. 스토킹 피해자 80% 여성, 가해자 81% 남성,”『여성신문』, (2022.10.1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28, 2022년 10월 13일 접속,

한 경험이 있으며, 47% 가량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였다.[4] 이러한 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도움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강제적 통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살인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여성폭력과 연관된 심각한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중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2021년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2016년 5월에 '강남역 살인사건'은 평소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30대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남역 근처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성 6명이 지나간 후에 한 20대 여성에게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다른 남성들에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을 향한 살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2021년 3월에 벌어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은 퀵 서비스 기사로 속여서 문을 열게 한 후에 집에 있던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간 후에 귀가한 어머니, 그 후 1시간 후에 귀가한 당사자까지 차례로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최근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는데,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범인은 함께 입사한 동료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인은 350여 건의 문자 메

---

4) 장미혜 외.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5월.

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거절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범인을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범인으로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잔인한 범죄이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진 범죄이고, 다른 둘은 스토킹의 결과로 발생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스토킹 범죄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사건은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분명 이 사건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의 폭력이 향하는 방향이 여성이라는 점과 남성에 비해 폭력에 더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3. 주요 논점

이상의 사건들은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게 가해진 살인사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논점을 한 마디로 줄이면 '여성 혐오 범죄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대체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 범죄가 '여성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라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조현병이나 심신 미약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몰아서 남성과 여성을 정치적인 대립지점에 놓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로 당연히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여성혐오 범죄로 몰아서 다수의 남성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사회적인 대립 구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 대립구도로 만들어진 진영논리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범죄를 개인적인 행위로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폭력과 범죄는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심리적인 기저가 바로 '혐오와 배제'이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사회 작동원리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지라르가 제시한 '희생양 메커니즘'이나,[5] 아감벤이 사용한 '호모 사케르'의 개념은 이러한 구조를 잘 드러낸다.[6] 이에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 내면의 심리적 기저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7]

우선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는 '여성 혐오'라는 용어가 지닌 착시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혐오의 대상은 부정한 혹은 가치 없는 어떤 특정한 것일 때 그 의미와 사회적 효과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집단(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천민계급)들에게는 쉽게 혐오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한 사회는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 구조를 지탱한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나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 여성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곤 한다.

4. 현상에 대한 이해

이에 '혐오', '여성 혐오', 그리고 '혐오 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혐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여기에 '여성'과 '혐오'를 붙이면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하게 된다. 여기에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면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

5) 르네 지라르, 김진석 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7)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된 사건들을 '여성 혐오 범죄'라는 진단을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범죄를 생각해본 일이 없다. 남자이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을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여 본질적인 현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 혐오'는 단순하게 '여성을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 못할 여성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8] '여성 혐오'는 여성에 대한 단순한 반감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에서 뿌리 깊게 형성된 확고한 편견들을 포함한다.[9] 한편, '혐오 범죄'란 '특정한 사회·문화적 인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즉 '개인 피해자에 대한 증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말한다.[10]

이에 우리는 본 사건을 너무 단순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미움이나 반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여성 혐오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사건을 너무 단순화하고 개인화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없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단순화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가?'라고 반응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다시 혐오로 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반응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

8)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1)(2019), 91.

9)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2016), 163-164.

10) 박무늬 외, 92-93. 필자는 미국의 사례도 찾아보았는데, 미국 LA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혐오 범죄가 정의되어 있다. "A hate crime is any criminal act or attempted criminal act directed against a person or persons based on the victim's actual or perceived race, national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gender."
https://www.lapdonline.org/what-are-hate-crimes/ 2022년 10월 16일 접속.

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만들어 낸 문화적 기저의 여성에 대한 깊은 편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편견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우리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여성 혐오'라는 말이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편견과 그것이 만들어낸 혐오 현상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5. 기독교 윤리적 성찰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기독교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과연 기독교(특히 개신교)는 오랜 시간에 거쳐 형성된 혐오와 배제의 결과로 빚어진 범죄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의 자리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가해자의 자리에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현상을 너무 단적으로 드러낸다. 2012년 전병욱 목사 사건이나 2016년 이동현 목사 사건은 너무 유명하다. 2021년 2월에 임재우 기자가 강병원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기사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종교인은 547명으로 의사 613명 다음 순위로 기록되어 있다.[11] 이러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전유하는 사적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 환경(지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의 대응)이 피해자에게 재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12]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나쁜 상황으로 끝나게 된

11) 임재우, '전문직 성범죄' 1위는 의사…여성계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 2022년 10월 16일 접속.
12) 권최연정,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2017), 33-41.

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독교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인류가 형성한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의 형성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여성을 차별하면서, 열등한 존재로 대하며, 심지어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더 깊은 혐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와 같은 절대 순종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게 만드는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13)]

이렇게 교회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여성이 안전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이도 안전할 수 없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그 어떤 대상을 편견으로 대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이 안전한 교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안은, 위의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혹은 우리 교회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아.'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내가 속한 (보편) 교회가 쌓아온 편견의 문화에 대항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노력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윤리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용서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는 '반성하고 되돌아서는 윤리적 결단'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천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이

13) 백광훈, "목회자의 성적 비행과 목회 윤리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2017), 275-276.

제 그만하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였다.[14] 나의 이웃이 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습관은 편견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대상을 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상과 관계없이 이웃이 되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6. 나가는 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은 사회·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나고 말았다. 사건 자체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현상을 개인적·심리적 문제로 치환하면서 근원적인 대책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책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영논리에 빠져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식되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대면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을 거부하는 윤리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논리도 악임을 깨닫자. 그 악을 거부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처럼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되는 법'을 배우자.

---

14) 괄호의 내용은 필자가 문맥적인 의미로 추가한 것임. 누가복음 10장 29절~37절을 보라. 본문의 구조에서 율법교사와 예수의 논쟁을 잘 보면, 유대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혐오와 편견의 문화를 질책하시는 예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권최연정.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2017). 25-48.

누스바움, 마사.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바우만, 지그문트. 이일수 역. 『액체 근대』. 서울: 도서출판 강, 2000.

박무늬, 민혜영, 장태훈.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7(1)(2019). 85-111.

백광훈. “목회자의 성적 비행과 목회 윤리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2017). 269-297.

벡, 울리히. 홍성태 역. 『위험사회』. 서울: 새물결, 1996.

아감벤, 조르조.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아렌트, 한나.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서울: 한길사, 2006.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2016). 147-186.

이세아. “여자라 당했다. 스토킹 피해자 80% 여성, 가해자 81% 남성”. 『여성신문』. 2022.10.11.

장미혜 외.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5월.

지라르, 르네. 김진석 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2007.

https://www.lapdonline.org/what-are-hate-crimes/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274.html?_ga=2.222295832.1078080742.1665907884-1402507631.1639003949,